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북도정

2003 가을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3
세계인도 감탄했습니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원더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wonderful

55개국 1만여명 문화예술인 참여, 관람객 173만명 다녀가
3천 2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5천명 고용창출 성과



autumn Contents

- 2**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3, 세계인을 감동시킨 “천마의 꿈”
• “함께 그러나 다르게” 보여준 지구촌 문화의 다양성!
- 5** 특별대담 - 이의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과 문화다양성 이론의 선두주자 올레 소잉카
• “산업의 발달보다 전통문화 살아있는 경주엑스포 행사가 훨씬 인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 6**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초청 미국 방문, 투자설명회 열어
• 문화컨텐츠 세일즈 활동 펼쳐
- 10** 도정의 초점 -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경제제일 도정” 추진
• 민선3기 후반, “경제제일 도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12**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 위한 “일석이조” 효과
- 13** 자원연계형 한방산업 적극 육성
• 한방산업 세계화에 나서다.
- 14** 도정 이모저모
• 일본 도레이그룹, 경북지역에 3억불 투자, 3년간 연차적 투자
• 한국투자 외국기업 CEO 경주로 집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초청 경북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홍보전시판매장 문열어
• 도 -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교류의향서」 체결
• 2003경북과학축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하여 경주서 개최
- 18** 알아줍시다
- 19** 건강이야기 - 매일 30분 이상씩 걷자
- 20** 인터넷새마을운동 선포 2주년 기념 「정보화체험 수필공모」 당선작
- 22** 가 볼만 한 곳 - 한국국학진흥원 문중유물 특별기획전
- 24** 도정단신
- 26** 도의회소식
- 32** 경북의 문화유산

경북도정 2003 가을호(통권358호)

발행처 : 경상북도

발행인 : 이의근

편집인 : 김장주

발행일 : 2003년 11월 5일

인쇄처 : 흥익출판인쇄사

☎ (053) 356-0088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 950-3058, 2031 FAX. 956-4926

2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3, 세계인을 감동시킨 “천마의 꿈”





“함께 그러나 다르게” 보여준 지구촌 문화의 다양성!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3

「2003 대한민국 파워 브랜드 칸트(KHANT) 대상」 수상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잡으며,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3」이 「2003 대한민국 파워 브랜드 칸트(KHANT)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클럽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일간스포츠와 여성중앙, 한국증권신문사, IBHM Brandshops, 홍익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등에서 선정하는 칸트(KHANT) 대상은 Korea(한국), Human(인간), And Nature(자연), Technology(기술)을 줄여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고루 갖춘 각 부문별 최고의 상품 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3이 올해 문화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문화엑스포 행사가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국내 문화행사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공헌하였음을 인정받은 쾌거이다. 





“산업의 발달보다 전통문화 살아있는 경주엑스포 행사가 훨씬 인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올레 소잉카-

이의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과 아프리카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문화다양성 이론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올레 소잉카(Wole Soyinka)와의 대담이 지난 9월 25일 현대호텔 오팔룸에서 약 1시간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문화의 다양성과 공동가치’를 주제로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동안 열린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초강연을 통해 높은 문화적 식견을 전해준 올레 소잉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대담을 시작했다.

이의근 조직위원장 :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3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레 소잉카 : 경주는 깨끗하고 아담하고 정갈하며 인간과 조화를 잘 이룬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고향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의근 조직위원장 : 경주엑스포는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조화시키는 문화축제입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돌아보신 소감은 어떠하십니까.

올레 소잉카 : 이번 행사를 다 둘러보진 못했지만 신라라는 고대의 모습과 현대문화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속에 서적박물관회 등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의근 조직위원장 : 영국이 20세기 초 산업박람회를 통해 산업혁명을 이루어 냈듯이,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를 앞서가고자 경상북도와 경주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레 소잉카 : 세계인들이 한 자리에서 문화를 경험하고 그를 통해 상호보완·발전시켜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박물관에서 본 신라유물을 통해 신라라는 나라를 알게 됐는데, 이곳이 바로 그 유물이 나왔던 신라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도 문학, 문화, 영화를 통해 현대와 과거



를 재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런 행사는 많은 학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시킨다면 훨씬 한 단계 발전된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의근 조직위원장 : 나이지리아와 경상북도가 문화·경제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류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올레 소잉카 : 경상북도에서 관심이 있다면 제가 직접 나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의근 조직위원장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주에서의 경험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컨텐츠 세일즈 활동 펼쳐

세계무역센터협회 총회에서 기조연설과 첨단영상소개



세계무역센터협회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의근 도지사와 경상북도 투자유치단 일행은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일정 중에 우루과이, 캄보디아, 이탈리아 베네토주 등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3에서 상영된 주제영상 작품인 “화랑영웅 기파랑전”의 해외수출을 위한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10월 13일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로널드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총회에서 이의근 도지사는 “문화산업-세계를 여는 창”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인류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세계무역과 평화를 증진시키는 요체”라고 지적하면서, 할리우드 등 일부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편중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문화엑스포가 세계 각국에서 자주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찬사의 박수를 받았다.

이 지사는 당초 WTCA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들만을 대상으로 연설을 할 계획이었으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경험은 모든 회원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세계 각국, 문화엑스포 개최에 큰 관심

기조연설 후 이 지사는 우루과이 Nelson Pilosof 전 문화부장관(현 WTCA 문화관광분과위 공동의장)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데 이어, Roland Eng 주미 캄보디아대사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본국 정부의 권한위임장을 가지고 오는 등 세계문화엑스포에 쏟는 자국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10월 14일에는 ‘물의 도시’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베네치아시가 속한 베네토주에서 클라우디아 샴바리(Claudio Sambri) 베네토주 WTC 지역회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베네토주에서는 2008년 베네치아 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도와 러시아도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데 따른 양해각서 체결을 희망해 오는 등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우리 도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도에서 지난 9월 세계문화엑스포(World Culture Expo)라는 용어와 로고를 미국 실용신안특허청(USPTO)에 등록한 바 있는데, 그 효력이 로마협정에 의거 가입국 전원(87개국)에 발생함에 따라 법적으로 특허권자인 우리 도의 허가 없이는 용어와 로고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세계문화엑스포가 일정한 규모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며,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협의하는 등 문화 엑스포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면서 프로그램의 공동개발과 참여 등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영상투자 및 첨단 IT산업 유치 위해 투자가 면담

WTCA총회 행사장 별관에서는 “화랑영웅 기과랑전” 시사회와 문화상품 Trade Show가 WTCA 문화관광분과 위원 및 관련 투자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참석자들이 한국의 높은 첨단 영상기술수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구체적인 투자유치에 기대를 갖게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의근 도지사는 첨단 IT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RLG사의 랫셀 R. 스미스

세계무역센터협회(WTCA)는 1970년 미국, 일본 등 세계무역센터 주창자들과 다수의 세계무역센터 옹호론자들이 국제무역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조직한 민간경제단체이며, 현재 세계 101개국내 280여개의 주요도시를 망라한 세계 320여개의 무역센터와 75만여 무역관련 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서울, 부산 등 10개 지역의 무역센터와 7만8천여 기업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Russell R. Smith)를 비롯한 많은 기업가들을 면담하면서 경북의 투자환경과 장기발전계획을 설명하고, 구미의 IT산업과 포항의 신소재 철강산업에 대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기를 제안했다.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한편 이의근 도지사와 투자유치단 일행은 10월 15일 세계 전자·IT산업의 중심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역의 실리콘밸리를 방문하여 50여명의 실리콘밸리의 주요 벤처기업인들과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을 상대로 경북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은 “화랑영웅 기과랑전”의 상품화와 첨단 IT산업의 경북 유치를 위해 화랑영웅 기과랑전 시사회와 경북의 투자환경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투자환경 프리젠테이션에서 문기현 투자유치단장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구미지역의 투자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구미지역의 세계적인 제품인 TFT-LCD, PDP, 휴대폰 등의 세계시장 성장전망과 연계하여 경북에 투자를 하면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지를 설명하여 참가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민선3기 후반, “경제제일 도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국내·외 투자유치에 총력

이의근 도지사는 지난 7월 “경제제일 도정”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민간인 투자유치전문가를 영입, 투자유치단장으로 임명하여 해외마케팅과 국내·외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참여정부의 중·장기계획과 사업발굴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미래전략산업의 육성과 물류유통 기반조성사업 등의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경산시 삼풍동 경북테크노파크 내 경북벤처기업생산단지 건립비 6억원, 상주시 한방자원개발센터 건립 5억원, 신기술포장연구센터 3억원, 모바일하이테크지원센터설립 8억원,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터 건립 8억원, 문경특산물전시센터 건립비 3억원 등 6개사업에 33억원과 포항, 안동, 경산, 예천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로 4개지역 21억원 등 총 10개사업에 54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 지난 8월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산의 대구카톨릭대학교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전통문양디자인개발」사업비 7억원, 칠곡군의 「경북하이테크 창업연구센터 설립」마무리 사업비 7억원, 동해안 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촉진 기반조성을 위한 「울진 후포 농수산물유통센터 건



00110010111101010010011100110101001010101010011
1100100101010010001111001010010010001100111

0011001010110101001001110011010101
1100100101010010001111001010010



립」사업비로 6억원 등 20억원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영덕강구시장 기반조성사업비」로 5억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 등 금년도에 총 79억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였다.

투자유치활성화대책 보고회 개최, 투자유치 위한 전방위 노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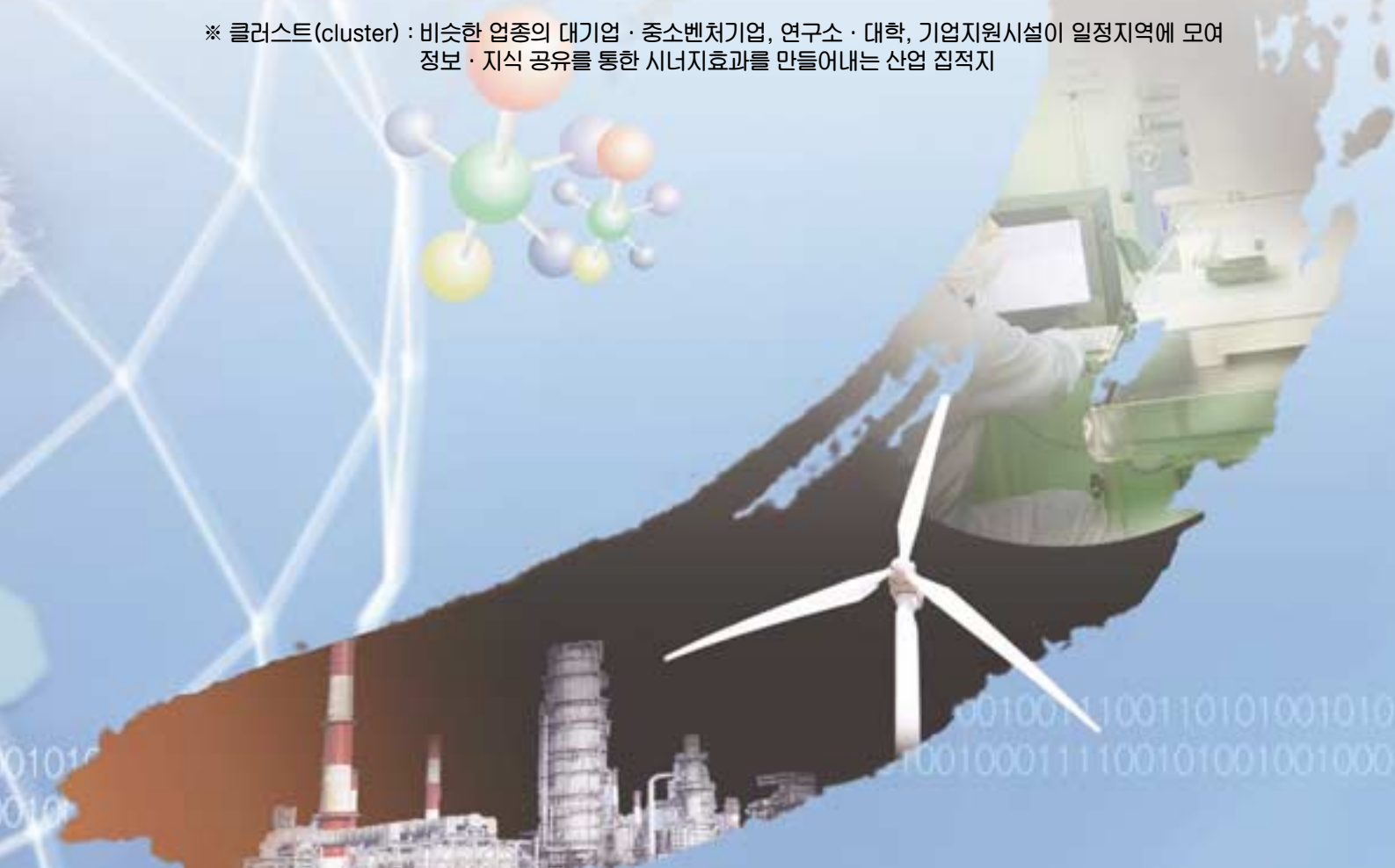
한편,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과제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2일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투자유치단장을 중심으로 투자유치조직을 보강하고, 주요 투자기업 및 프로젝트별로 PM(project manager)을 지정하여 투자상담에서 행정지원, 사후관리 그리고 증액투자 유도까지 전담토록 하여 실질적인 One-Stop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투자유치를 유도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의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도레이세한의 우리 도에 대한 투자결정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차별화하여 투자유치 대상을 목표(Targeting)로 선택과 집중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휴대폰, TFT-LCD, PDP 등)에 대해서는 부품소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신규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맞춤형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특히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사후 서비스를 강화하여 노동·금융·세무·법률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기적으로 경영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투자 발굴을 통한 부품소재기업의 클러스터(cluster)화와 사후 경영서비스의 강화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구조 개편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클러스터(cluster) : 비슷한 업종의 대기업·중소벤처기업, 연구소·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모여 정보·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 집적지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 위한 “일석이조” 효과

경상북도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제정에 대비해 지난 7월부터 도내 시·군의 계획안을 접수한 결과로 총 65건이 신청되었다.

시·군에서 신청한 65건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문화·관광·레저스포츠 분야 특구 34건, 산업·과학분야 특구 11건, 농림·수산업분야 특구 13건, 교육·의료분야 특구 5건, 기타 2건 등이며, 시·군별 신청 특구에 대한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규제 완화를 먼저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사해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발전특구는 중앙정부의 재정이나 세제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외자 및 민자유치, 지방채발행 등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 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부터 우선 도입된다.

한편, 재경부는 특구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당부문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며, 내년부터 연2회 특구신청을 접수, 정기적으로 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매년 특구운영 성과를 평가해 규제 완화의 전국 확산가능성, 특구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시·군별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현황

구분	신청건수	명 칭	구분	신청건수	명 칭
계	65건				
포항	3	호미곶 해맞이 관광특구 재래시장활성화 특구 대체의학 특구	의성	3	의성군 마늘 산업 특구 의성 금봉 자연휴양림 특구 금성 문화관광 특구
			청송	1	주왕산 관광레저 특구
경주	5	경주문화·레포츠 특구 전통명주마을 보존·육성 특구 해양 휴양관광 특구 자연생활 하천생태관광 특구 한방 테마 특구	영양	2	반딧불이 특구 고추산업 진흥 특구
			영덕	2	바다관광 특구 영덕대게관광특구
김천	3	그린랜드 특구 포도와인 특구 관광문화 특구	청도	2	투우관광 특구 강변리얼체험 특구
			고령	2	친환경레포츠 주거복합생태도시 특구 대가야 역사관광 특구
안동	2	댐 물을 이용한 레저 특구 전통유교 문화 체험 특구	성주	5	가야산 관광 특구 중소기업 및 환경 산업단지조성 특구 성주 참외 특구 실버타운 및 전원 도시개발 특구 영어 교육 특구
구미	3	영어타운 및 영어교육 특구 부품·소재산업 특구 보육시설 특구			
영주	3	소백산 테마파크 특구 풍기 인삼 특구 영주시 골프타운 특구	칠곡	4	물류 테마 파크 특구 6.25 격전지 종합 관광·휴양 특구 Hi-Tech Village 산업 특구 가산 테마·휴양 특구
영천	3	한방진흥 특구 포도 특구 승마·휴양림 특구	예천	3	온천특구 관광특구 천문과학특구
문경	3	문경 한방종합 휴양단지 특구 전통 도자기 특구 철로 자전거 관광특구	봉화	4	춘양목 산림문화단지 특구 봉화 옛 고을탐방 특구 청량산 연계 여가 선용 특구 건강 약수 특구
경산	2	경산묘목 특구 갯바위 관광 특구	울릉	1	해양생태도시 특구
군위	1	전원 레저 특구			

한방산업 세계화에 나서다


경주서 「WHO전통한의학 전문가 회의」 개최

우리 도는 한방산업의 기반이 되는 청정 한약재와 자연환경, 동양생활양식 등의 보고로서 자원연계형 한방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WHO전통한의학 전문가 회의는 전국 최초로 우리 도와 대구한의대가 공동으로 유치하고 주관한 행사로서 향후 지역 한방산업의 발전과 세계화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미국·호주·중국·일본 등 13개국 35명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전통의학에의 효능과 안전성을 판단하는 과정과 전통의학의 가치와 진흥 등의 내용으로 열띤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개막식에서 우리 도가 특별 제작한 「경상북도 한방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상주시의 한방자원 개발 소개 등이 담긴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여 경북지역의 한방산업 역량과 한국의 한방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전문가들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상주시 한방자원산업화단지를 기반으로 한방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유치를 비롯하여 한약자원개발, 한약재 생산 가공, 한방산업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센터 설치, 전문인력양성, 한약재 유통지원 등 한방 전반에 관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들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차원의 사업설명 등 발빠른 활동 중에 있다.


향후 한방사업의 구체화를 위하여 시·군 및 한방 전문가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도레이그룹, 경북지역에 3억불 투자 3년간 연차적 투자, 고용창출과 전자소재산업 발전 기대




일본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 가운데 하나인 TORAY그룹의 사카기바라 사다유키(榎原定征) 대표이사 사장이 8월 26일 이의근 도지사를 예방, 구미지역에 대한 투자확대방안을 협의한 끝에 구미외국인기업전용 단지에 3년동안 3억불을 투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사카기바라 사장의 방문은 지난 3월 이의근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해 일본 도쿄의 도레이그룹을 방문하여 경북지역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초청한데 따른 답방으로 이루어졌으며, 도레이그룹은 감사의 표현으로 이 지사에게 명예 사원 칭호를 부여하는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에 가입 국제 자치단체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국제협력 강화 기대

도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 자치단체간 각종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인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에 가입했다.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민서비스 향상과 지역개발을 지원하고 정보·기술의 교환을 통한 지방자치의 진흥 도모를 위하여 1913년 설립, 현재 세계 111개 국가에서 420여 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7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98년 11월), 부산시('71년 10월), 제주도('97년 8월), 구미시('99년 9월), 대구시('02년 6월)가 이미 가입하였으며, 올해 우리 도와 경기도, 강원도와 김천시가 동시에 가입하였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계획」 시행


내년까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공개시험 거쳐 60명 채용

우리 도는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내년까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장애인 60여명을 '행정', '사회복지'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시·군 공무원의 도 전입시험때에 장애인 공무원 전입할당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 채용율이 낮은 시·군부터 결원 발생시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매년 채용실적을 도에서 확인·평가하여 우수 시·군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투자 외국기업 CEO, 경주로 집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초청, 경북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도에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경주 현대호텔에서 해외우수기업 유치에 위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 CEO를 초청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 우리 도의 투자장점과 조세·임대료감면 등 투자인센티브를 소개하고, 투자유망프로젝트로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감포관광단지 개발, 철곡왜관2단지 등을 홍보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그루버 하인즈(Grewe Heinz) 보쉬 코리아 대표, 폴 부르카트(Paul T. Burkhart) 휘슬러코리아 대표, 론 메지봉(Ron Meijboom) 옷프젤 터미널 한국지사장, 스베인 올라브 토레(Svein Olav Toroe) 콩스벌그 오토 메이티브 한국대표, 존 브로드(John broden) 캐나다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30여명의 우수한 해외기업 대표가 참석하였다.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홍보전시판매장 문열어

도 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 제품의 홍보전시판매장 개관식이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하여 도내 상공회의소회장, 실라리안 참여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일 개최되었다.

실라리안 참여업체의 숙원사업으로 브랜드 홍보와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건립하게 된 실라리안 홍보전시판매장은 부지매입 4억8천5백만원, 건축비 5억1천5백만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완공하였으며, 지하 1층은 창고와 주차장, 지상 1·2층은 전시판매장, 지상 3층은 홍보관 및 해외바이어 상담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보전시판매장(TEL053-754-1418)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맞은편 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매품은 실라리안 지정업체 24곳에서 생산되는 의류, 침장류, 도자기, 주방용품, 장갑 등 생활용품으로 개점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도 -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교류의향서」 체결 경제, 교육, 문화·예술, 농업, 관광, 수공업 등 6개 분야 교류 적극 추진



도는 9월 9일 도청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파쿠알람9세 부지사 일행을 초청한 가운데 양 도·주간 교류의향서를 체결, 앞으로 경제, 교육, 문화·예술, 농업, 관광, 수공업 등 6개 분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교류여건이 성숙될 경우 자매결연을 체결키로 했다.

족자카르타주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320여만명, 면적은 우리 도의 1/6정도인 3,185km²이고, 농업·축산업 및 섬유·의류산업 등 1, 2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고대왕국시대부터 내

려오는 2개의 왕국(족자카르타 왕국, 파쿠알라만 왕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파쿠알람9세 부지사가 파쿠알람 왕국을, 하멩구부우노10세 주지사가 족자카르타왕국의 왕위를 세습해 오고 있다.

이번 교류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후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경북의 선진농업 기술지원과 동시에 도내 중소기업의 선진기술과 제품의 수출이 예상되며, 특히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등의 요인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아 도내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이 크게 기대된다.

「2003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 경주에서 열려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구성과 ‘동북아 경제통상정보 시스템’ 구축 제의

도는 9월 24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중·일·러·몽골지역의 5개국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2003 동북아비즈니스촉진회의”를 개최, 회원자치단체간 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동 추진할 교류협력사업을 모색하였다.

특히, 우리 도는 동북아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 상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 참가하는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구성과 ‘동북아 경제통상정보 시스템’ 구축을 제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편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12개국 100여명의 바이어와 도내 200여 업체가 참가하는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가 함께 열려 전자, 기계, 섬유제품, 농산물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상담을 진행하였다.



코트디부와르 오노라 아베니 코피 주한대사 일행 방문 에너지산업 개발 위해 도내 기업의 협조 요청

서부아프리카의 중심국가인 코트디부와르(영어명 : 아이보리코스트)의 오노라 아베니 코피(Honorat Abeni KOFFI) 주한대사가 10월 4일 우리 도를 방문, 이의근 도지사와 상호 우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코트디부와르는 코코아, 커피 등 농업 및 농산가공업이 주요산업이나, 최근 석유·화학산업, 수력 발전소, 열발전소 등의 에너지 산업의 개발을 위해 도내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오노라 아베니 코피 대사는 로랑 그바그보 코트디부와르 대통령이 이의근 도지사를 초청하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이 지사는 초청하여 준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코트디부와르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2003경북과학축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하여 경주서 개최 지능로봇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 선보여

「2003경북과학축전」이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동안 경주실내체육관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3 행사와 연계하여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열린과학체험마당, 첨단산업기술박람회, 경북벤처박람회 등 다채로운 테마로 개최되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에는 70여개 팀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었으며, 그밖에 국내·외 유명 연구단체의 지능형 청소로봇 시연 등을 실시하였고, 「열린과학체험마당」에서는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과학체험의 열린 장을 제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조시켰다.

또한 「첨단산업기술박람회」와 「경북벤처박람회」를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벤처·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성과를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정에서도 민원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민원신청서식 작성 도움코너」 서비스 개시

경상북도에서는 도 홈페이지에 「민원신청서식 작성도움코너」를 설치 운영한다.

2003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시책사업으로 「민원신청서식작성 도움코너」를 도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토록 지정하고,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기간동안 자료수집, 초안자료 검토 등을 거쳐 민원신청서식 163종을 발굴하여 도청홈페이지에 전용코너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할 경우 처리요령과 작성방법을 몰라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후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원서식 도움코너가 운영됨으로써 일반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 민원사무별 신청서식과 표준기재사항 예시 등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손쉽게 민원신청서를 출력 받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신청서 작성시 접속경로는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b.go.kr → 전자민원창구 → 민원관련정보 → 민원신청서식을 클릭하게 되면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 개인생활 민원신청서와 자동차·교통, 기업·경제, 지방세, 문화예술, 농수산, 사회보장·건강, 환경, 부동산 등 총 163종으로 구분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민원신청서 작성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 총무과 053-950-2000)

2003년산 산물벼 수매 실시


10월 1일~11월 15일까지 도내 39개소 미곡종합처리장에서 41,644톤 수매

도에서는 2003년산 산물벼 수매를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6일간 도내 민간 및 농협 미곡종합처리장(DSC 포함) 39개소에서 실시한다.

전년도 수매실적 42,241톤 보다 597톤이 적은 41,644톤의 산물벼를 수매할 계획이며, 2003년산 추곡 정부수매 가격은 조곡 40kg당 특등 62,440원, 1등 60,440원, 2등 57,760원, 3등 51,410원으로 2002년산 수매가와 같은 수준이다.

수매대상 품종은 초다수성 품종 및 발벼를 제외한 일반벼를 수매하고, RPC(rice processing complex)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3개 품종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영농기전 농가 약정시 사전 예고한 경우에는 해당품종에 한해 수매한다.

산물벼 수매검사는 미곡종합처리장 자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체검사원이 없는 RPC(rice processing complex)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등급판정에 농가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한다.

원활한 산물수매 진행을 위해서 농가에서는 산물벼 출하가 일시에 이루어지는 점과, 미곡종합처리장의 수매처리 능력을 감안하여 시·군(읍·면)에서 통보한 일자별 출하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산물벼 수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담당부서 : 농산과 053-950-2388)



무리한 운동보다 규칙적인 ‘걷기운동’ 이 건강에 좋아

운동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만 하면 체력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운동만 한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체력은 강해질 수 있겠지만 건강은 나빠질 수도 있다. 오히려 운동선수 중에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몸의 한 부분만을 발달시키는 근육운동보다는 자신의 체격과 연령에 맞춰 심폐기능을 증진시키는 전신운동이 바람직하다.


체력관리를 위한 자가진단법 한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이 평가법은 24점 만점이지만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점수를 가지고 있어 15점 이상이 되면 정상이라고 본다.

첫째, 하루에 30분 이상 직장 밖에서 걸으면 8점, 둘째, 매일 맨손체조를 하면 6점, 셋째, 1주에 운동을 2회 이상하면 4점, 1회씩 하면 2점을 주며, 넷째, 눈을 감고 팔을 벌려 한 다리만으로 30초 이상 서 있을 때는 6점을 주고 20초 이상 설 수 있으면 3점을 매긴다.

이상 항목은 모두 30대 이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때 15점만 맞아도 정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정도라면 체력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체력 연마에 힘쓰는 사람이면 이 문항에 따라 자신의 체력을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같은 평가법을 보면 비록 일 주일에 한두 번쯤 심한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배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운동보다는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20~30분간 규칙적으로 몸을 단련하는 전신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중년 이후에 여러 가지 기구를 써서 근육을 단련시키는 ‘보디빌딩’은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헬스클럽에서 뛰거나 자전거를 타고 땀 흘리며 역기를 드는 것도 좋겠지만 하체를 튼튼하게 해서 심폐기능을 증진시키면서도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걷기운동이 몸에 가장 좋다.

비록 근육질의 몸매는 되지 않겠지만 많이 걷고 온몸을 움직이는 맨손체조를 매일 하는 것이 헬스클럽에서 가끔씩 기구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된다. 



| 건강 Tip | 식사 후에는 눕는게 좋다?

식사 뒤엔 잠깐이라도 앉아서 쉬거나 눕는 게 좋다. 소화기관으로 혈액공급이 집중돼야 소화가 잘되는데, 산책을 하거나 일을 하면 혈액공급이 분산된다. 그러나 식사 뒤 잠을 자면 소화기능이 저하돼 위 속에 음식이 계속 남아 있게 되고, 그 때문에 위산 분비가 계속돼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기 쉬워진다.

경상북도가 인터넷새마을운동 선포 2주년을 기념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널리 전파시키기 위해 정보화체험 수필을 공모한 결과, 140여편의 응모작 중에서 경주시 용강동 배강우씨의 '가장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였으며, 최우수 2명, 우수 3명, 장려 10명 등 16편을 당선작으로 발표하였다.

가장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혼자 길을 걷다 문득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며, 또 가끔 허리까지 낮게 날아다니는 고추잠자리를 보면서 가을의 인사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새삼 느낄 수가 있다.

일요일 오전 늦잠을 자고 싶어도 오늘따라 우리 집 자명종이 유달리 나를 괴롭힌다. 아내는 언제 일어났는지 아침식사 준비를 하다가 고개를 흔들면서 나를 바라본다.

“어휴! 배 나온 아저씨, 창밖에는 벌써 동창이 밝아 노고지리가 웃는다”하며 두 눈을 부릅뜬다. 늘 이런 식이다. 나의 아침은...

까치머리로 일어나 주는 밥을 먹는중 마는중 하다가 아내에게 미안해서 “저 여보 오늘 우리 시장에 가서 뭐 좀 사자. 아! 그래 저번에 도마 산다고 그랬잖아”하며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했더니, 아내는 이내 “자기가 하도 약속을 안 지켜서 인터넷쇼핑으로 벌써 주문했어” 하는 거였다. “그게 뭘데! 인터넷으로 그런 것도 되냐?”하며 나의 목소리는 또다시 기어들어갔다.

그래, 나는 우리집 아니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천연기념물1호 ‘컴맹’인 것이다. 아내나 친구들이나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 나는 “그래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고 몰인정한 것이야. 편지로 연필흑심 내어가며 침발라우표 붙여서 보내야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하고 나를 위로했고, 남들이 각종 정보나 자료구입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할 때 나는 “도서관에서 발품 팔아가며 다녀야지 그게 공부한 거 아니겠어. 왜 그리 사람들이 게을러~ 히히”하며 언제나 나를 합리화 시켰다. ‘그래 인터넷! 컴퓨터! 그것이 별거야. 다 이기적이고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산물이야. 나는야 전통 아닌 전통을 지키는 일등공신일지도 몰라~ 킁킁’하며 늘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다. 그러면서도 언제부터인가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 한구석에 커다랗게 자라고 있는걸 부정할 수는 없었다.

사실 일을 하면서도 간단한 서류조차도 옆자리 사람에게 음료수라도 사주며 아쉬운 소리 끝에 부탁을 하는 처지라 그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

것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며 비웃는 듯한 웃음이 서서히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오! 대원군 할아버지께서 쇠국정책을 펼치실 때의 심정이 나와 같지 않았을까? 아! 옛것을 고수하는 것이 왜 이리도 힘이 드는 것일까? 기분이 씩씩했다.

아니나 다를까, 가끔씩 고향에 전화하는데 “어무이, 아버지 어디 계시요?”하는 물음에 어머니 왈 “아까 시청에서 하는 무료 컴퓨터교실 가셨어”하시는 것이었다. 이견 또 무슨 소린가?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곧 ‘교회’를 바라보시는 분이 된 소린가 싶었더니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형님의 아이와 이메일 주고받고 싶어서 그런다나... 어머니가 다시 나도 따라 배워서 너에게도 보내마 하시는 것이었다. 아! 이견 아닌데... 순간 나는 얼른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피지도 못하는 담배를 피워댔다. 내가 크게 잘못 사는 건 아닌가하며...

비 오는 저녁, 아내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서 각종 은행정보와 각종 서식을 출력해서 가게부에 참고하고 이곳저곳을 확인하곤 한다. 나는 신기한 듯 옆에 있다가 “자기야! 지금 뭐해?”하니 약간은 귀찮다는 듯이 “응! 일일이 은행 다니면 힘들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잖아.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율 따져 적금 하나 넣으려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각종 세금을 내려고 그래”하는 거였다. 나는 그저 “으응 그래”하면서 혹시나 나한테 물어볼까 얼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여보, 당신한테 할 말 있는데...”하며 말을 건네려는게 아닌가. “자기 이런말 해서 미안한데 자기는 심청이에 나오는 심봉사 같아. 자기는 이런 무한한 정보를 그저 바라만 보고 무시하니 눈 뜬 장님이야. 지금이라도 좀 배울 수 없어...”하면서 나름대로 조심해서 말을 한다는게 나는 괜한 자격지심에 “그래 너 잘났다. 언제부터 너가 이렇게 변했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아내는 곧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목소리로 “자기가 일하면서 남에게 그깟 서류 한두장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나도 남들 부부처럼 이메일 주고받고 싶어!

그게 뭐 대단한 욕심이야?” 이라는거였다. “자기가 무슨 대원군의 후예라고...정말 될 말을 끼워 맞추라고...” 하는 거였다. 나는 우산을 들고 집을 나왔다. 짜증도 짜증이지만 내 자신이 더 미웠기 때문이다.

마침 바로 옆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소주 한잔 하자고... 좋다고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 책상위의 노트북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라는 음성이 들리는게 아닌가. 그러더니 친구는 미국에 사는 여동생이라면서 메일을 바로 보내면서 지금은 친구가 있으니 저녁에 음성채팅하자 그러는게 아닌가? 나는 “야 너희한테는 전화 같은 거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가정을 한곳에 묶어주는 애정의 끈이라고나 할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하는 거였다. 나는 괜히 머쓱해져서 내가 직접 쓰고 부치는 편지철학을 이야기하려고 서두를 꺼내니 친구녀석은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너 그것 쓸만큼 부지런한 놈도 아니잖아.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 알고 그런 소리하면 납득이나 가지”하며 친구조차 흥분하는 것이었다. 나는 할말이 없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는 도망치듯 친구 집을 빠져나왔다.

컴퓨터를 배우며 심봉사의 눈뜨는 심경 느껴

저녁바람은 차가웠다. 모든 게 나를 힘들게 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컴퓨터 자체가 무섭고 다가가기 힘든 존재였다.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니 아내는 자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괜히 나는 눈물이 나왔다. 아내는 이내 차를 한잔 끓여 내오더니 시청에서 하는 무료 컴퓨터 강의에 내일 등록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었다. 고마웠다. 아내의 마음이...

이윽고 나는 등록을 하고 자상한 강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놀라운 것은 초등학생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땀흘리며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였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아! 열심히 해야지”하며 자판을 두드리는데 처음에는 손목관절과 목이 아파 파스를 발라가며 배웠는데 할수록 재미가 더하는게 아닌가. 또한 문서작성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면서 회사생활에도 자신감이 생기는 등 이제 도망가지 않고

컴퓨터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메일 보내는 법, 각종 검색하는 방법 등을 배워 아내에게 처음으로 메일도 보내봤다. “당신 때문에 요즘 살맛 난다고...” 그럼 아내는 “채팅하다가 바람 피우면 안돼!”하며 앙증스런 답장을 보내준다.

요즘은 시간이 흘러 각종 자격증을 3가지나 취득했다. 이제는 아내를 내가 가르친다. “으휴! 아줌마 이것도 못해”하며 욕박을 질러댄다. 그럼 아내는 “개구리 울챙이 시절 모르네”하며 한번 웃어본다. 나는 오늘도 아내에게 메일을 남기고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컴퓨터로 정을 확인하고 사랑의 향기를 맡는다. 연필의 흑심나는 편지도 좋지만 사랑하는 표현도 시대에 어울리는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

“아! 대원군 할아버지, 제가 배신때려 죄송하구요. 반아들일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라 생각해요. 혹 다음에 만나는 날이 있으면 제가 컴퓨터 개인과외 해드릴게요. 헤헤헤”

인간 심봉사라는 소리까지 듣다가 시청에서 해주시는 무료 컴퓨터강의를 들으며 강사님의 자상한 교육에 우리 가정은 더욱 탄탄한 끈으로 연결되었으며, 무엇보다 세상을 보는 나의 눈높이가 무척이나 커졌다. 인터넷이 주는 무한한 혜택으로 우리는 세금 내는 것부터 친구안부 그리고 국가정책까지 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참여도 할 수 있다. 물론 나름대로 폐단도 있겠지만 무엇이든 과하지 않는 중용을 지켜가면 오히려 삶은 윤택해지리라 믿는다.

오늘 저녁에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메일을 주고받아야겠다. 화상채팅까지 배우셨다는데... 주말에는 아내와 데이트도 할겸 카메라 하나 사서 부모님께 선물이나 해드려야겠다.

“여보! 나 이만하면 늙은이 가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 맞지? 헤헤헤” 그럼 아내는 답장해준다. “그래 당신이 최고야! 호호호”

배 강 우 (경주시 용강동)





목판에 새긴 역사와 예술을 한 눈에

도산서원, 오천문화재단지 등 주변 볼거리도 풍성

눈부신 햇살과 청명한 하늘,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든 산이 좋은 계절이다. 가족들과 함께 가을을 만끽하며 역사를 배우고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나들이를 떠나보자.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산 33번지, 안동시내에서 도산서원 방향으로 가다보면 한국학 자료의 정리·보존과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현실에 접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학연구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다.

이곳 한국국학진흥원에서 10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기록문화와 목판의 세계'라는 주제로 「문중유물 특별기획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둘러싼 논란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국내에 있는 고문서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존·정리되어 활용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반성의 기회도 됐다.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 자료의 종합적인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여러 기관이나 개인이 분산해서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현대 문명의 이기에 밀려 갈 곳을 잃어버리고, 헛간이나 창고에 방치되어 부서지기도 하고, 혹은 벌레가 먹기도 하여 천덕꾸러기로 전락되어 버렸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자료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을 위하여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국학 자료의 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문중유물 특별기획전」 또한 이러한 수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기로 준비한 것이다.





전시회에는 퇴계선생 문집, 대동여지도, 도산십이곡 등 옛 선비들의 문집 목판과 고지도 목판, 갑골문 등 118점의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았으며, 이 자료들은 국학진흥원과 각 문중에서 소장중인 자료와 국립중앙박물관·경주·김해박물관, 궁중유물전시관, 고려대·영남대·청주대 등 대학박물관, 필암서원 등에서 대여한 희귀한 목판·목각자료들이다.


또한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행사로 목판과 목각각기 행사를 마련하여 목판을 새기는 과정을 나무베기 → 진액빼기 → 판형만들기 → 원고 뒤집어 붙이기 → 판각 → 인출 등의 순서로 재현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목각각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조상들의 열이 담겨 있는 소중한 기록문화의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선조들의 지혜와 사상 그리고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국학진흥원 주변에는 도산서원과 퇴계종택, 오천문화재단지 등 풍성한 볼거리가 있다.

광산 김씨 예안파가 소유한 문화재단지인 오천문화재단지에는 고문서 1,000여 점과 고서 2,000여 권이 소장되어 있고, 탁청정, 후조당, 광산 김씨 재실과 사당 등 고풍스런 옛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사적 제170호인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574년(선조 7)에 지어진 유서깊은 곳이다.

또한 퇴계종택은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6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퇴계의 할아버지 노송정 이계양이 지은 집으로, 건물 중앙의 돌출한 방에서 퇴계 이황이 태어났다하여 퇴계태실이라고 부른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헛제사밥, 간고등어, 건진국수 등 안동의 향토음식을 맛보고, 도산온천에 들러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가보는 것도 가을나들이의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전국 최초 인터넷조회 실시

도는 지난 8월 2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인터넷 정례조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인터넷 조회는 ‘한국을 담은 곳, 경북정보화마을’,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영상 상영과 도지사의 조회 순으로 진행, 도청과 산하기관 2,000여명의 공직자가 PC를 통해 조회에 참여하여 그동안 월례조회시 도청강당의 수용인원 제한으로 전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

(사)경북사이버농업인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도내에서 개인홈페이지를 갖추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300여 농가들이 참여하여 전자상거래 마케팅기법 공유, 농산물 온라인 홍보, 판매행사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디지털농촌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경북사이버농업인연합회를 결성, 지난 8월 8일 도 농업인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

고품질고추 생산 위해 고추종합처리장 시설지원 9억 투자

도에서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고추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의 위생적인 건고추 생산을 추진하기 위해 9억원을 투자, 도내 고추 주산지인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등 6개 시·군에 고추생산 이후의 세척, 세절, 건조 작업의 일괄처리시스템 시설을 갖춘 고추종합처리장을 설치키로 했다. <

도 소방본부, 신형·첨단 소방차량 34대 보강

도 소방본부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능력의 향상을 위해 사업비 22억8천6백만원을 들여 고성능화학차와 구조·구급차 등 소방차량 34대를 보강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신형구급차 9대와 행정차, 순찰차 각 1대를 포함, 김천, 안동 등 6개 소방서에 배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펌프차 등은 연내 배치완료를 목표로 제작 중이다. <

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도는 8월 28일 도청 강당에서 새로이 위촉된 도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은 지난 8월 22일로 임기가 만료된 문화재위원 30명을 재위촉하고 신규로 8명을 위촉하였으며, 전문위원은 재위촉 33명, 신규위촉 20명이다. <

자치복권 수익금으로 「농어촌지역 보육·정보센터」 건립

도는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전국지방자치복권의 수익금으로 배정받은 39억원을 공립 육아보육시설과 정보·문화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시·군별로 1개소를 시범·설립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자치복권 수익금 배정은 이번이 2번째인데 지난 2001년도에 10억5천3백만원을 받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바 있다. <

고령 다산 제2지방산업단지 20만평 조성

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령군 「다산주물단지」와 연접한 다산면 송곡리 일원에 66만㎡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9월 8일 다산제2지방산업단지를 지정, 2005년까지 334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유치업종은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타제조업 등이다. ☞

CIS지역 시장개척단, 계약추진 1,496만불 수출상담 5,194만불 성과

도에서 지역 중소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키예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보안감사 장비, 식품포장기계, 헤어드라이어기, 밧데리, 섬유제품 생산업체 등 12개 업체가 참가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계약추진 1,496만불, 수출상담 5,194만불의 성과를 올렸다. ☞

여성농업인 천연염색 및 전통테마마을체험교육 실시

도 농업기술원은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동안 영주시 순흥면 읍내마을에서 시·군 여성농업인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의 발굴과 전승을 통한 농촌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천연염색교육 및 전통테마마을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

안동 임하댐 상류에 하수처리장 대대적 설치

도는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댐 상류지역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안동, 임하댐 유역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대상지역은 안동댐 상류의 안동시 와룡면, 예안, 도산, 녹전, 임동, 임하면 등 6개소와 봉화군 봉화읍, 물야, 소천, 석포 등 10개소, 임하댐 상류인 영양군 영양읍, 입암, 대천, 수비 등 9개소를 합하여 총 25개소로서, 시설용량은 하루 1만5천톤 규모이며 2006년까지 8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청년층을 위한 대규모 취업·창업박람회 열려

도에서는 청년층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지역대학, 기업 등과 함께 하는 취업·창업박람회를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동안 구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250여개 업체에서 기업소개와 면접 등이 이루어졌으며, 창업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사업소재와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아이템을 선보이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03억원 신청

도에서는 영천공설시장 등 21개 시장에 점포개축, 아케이트 설치, 화장실, 하수도, 간판설치 등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총 소요사업비 206억원 중 절반인 103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했다. 이번에 요청한 사업비는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지난 추경예산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550억원을 확보한데 따른 것으로 도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이 확정되는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




제181회 임시회 결산

태풍 '매미' 복구지원 상황과 의회차원 대응책 마련에 집중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실시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9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81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제181회 임시회에서는 당초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도내 피해가 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에 전력케 하기 위해 도정질문은 다음 임시회로 미루었으며, 민생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과 태풍피해 지역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위주로 복구지원 상황과 의회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였다.

9월 18일 본회의에서는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와 복구지원 상황을 보고 받고,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 및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제181회 임시회에서 의결·처리한 안건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경상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경상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해외 자매도시 의회와 활발한 국제교류활동 펼쳐

경북도의회-일본 시마네현의회 의원 상호방문

경상북도의회는 최원병 의장을 비롯한 김선중 부의장, 손만덕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 이종철 국제친선의원연맹부회장 등 4명의 의원은 경상북도의 자매도시인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초청으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시마네현의회를 방문, 도·현간 친선교류 및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3 홍보활동과 입장권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나라현의회도 방문하여 엑스포 입장권 등을 전달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10월 13일 일본 시마네현의회 일·한친선의원연맹 회장단이 경북도의회를 방문, 상호협력 확대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3 행사를 관람하였다.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의회 방문

또한 최원병 의장 등 도의원 13명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5박 6일간 외국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통한 이해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의회와 사할린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하바로프스크주의회와 사할린의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외국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통한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3 행사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역교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교민 지위향상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



경기도의회, 경상북도의회에 수해의연금 전달



지난 9월 18일 경기도의회 김홍규 경제투자위원장과 강화철 보사환경위원장 등 경기도의원과 공무원 일행이 도의회를 방문,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에 대한 수해의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

농수산위원회 현지확인 활동 활발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방대선)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9월 5일 동해안까지 확산된 적조로 인한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항시 장기면 월포항에서 적조방제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제대책을 협의했다. 아울러 인근해역에서 어민들과 함께 『전해수 황토살포기』로 적조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어민들을 격려했다. <

중추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아 평소 사회로부터 소외된 도내 불우한 사회복지시설을 위로·격려하고,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대해 도내 해당지역 도의원이 생활필수품 등 위문품을 직접 전달했다.



태풍 '매미' 로 인한 농작물피해 현지확인 실시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9월 15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제14호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도내 태풍피해가 극심한 지역인 고령군 우곡면 도진제 제방유실 현장을 방문,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16일에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 태풍피해 상황 점검과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제182회 임시회 결산



200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실시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8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10월23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현지확인 활동,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4일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경정예산,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역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도정 질문 요지



채희영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농가부채와 태풍 ‘매미’ 피해 등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에 대한 대책, 농림예산의 20%를 직불예산으로 확보한다는 참여정부 공약의 이행여부와 내년 논농업 직불보조금의 단가 상향조정 대책, 환경과 생태계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산림정책 복안, 수해 예방을 위한 치산사업 방안, 공급위주의 수도행정에서 물 수요 억제 등 절수행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사의 의향, 시장 선호도를 반영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견해, 주5일 근무시대에 대비한 여가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장미향 의원 (기획위원회)

농촌의 취약한 복지여건 개선방안, 도의 농정관련 위원회 여성비율 현황 및 확대 의향,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를 '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용의,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프로그램'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분야 전문가 배치 의향,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존대책, 생물자원의 연구·보존·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전담부서 설치 의향, 대구·경북 한방산업육성 중간보고에서 상주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제외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협의 계획과 방안 등을 질문했다.



손만덕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실라리안 지정업체 외의 도내 여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운영자금 지원 대책,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조건,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도의 쌀 생산 조정제 추진현황과 계획, 금년도 도내 문화재의 도난·도굴현황 및 방지대책, 태풍 "매미"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대책, 농촌정보화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성과 등에 관해 질문했다.



박종욱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 관련 불협화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2004년 고속철 개통으로 예천, 포항공항 등의 국내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울진공항 완공시 제2의 예천공항 사태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경도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지난 2001년 12월 3일 본회의에서 제안한 대구 인근 칠곡지역에 경도대학 제2캠퍼스 설립에 대한 지사의 생각, 수입된 건고추에서 발견된 해충에 대한 도의 대책 등을 질문했다.



황복희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자원봉사 전문가의 양성방안 및 실적, 농어촌지역의 보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차등보육료지불제」도입에 대한 견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실적 및 취업알선 건수, 도의 여성발전기금 운영실태, 독거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시책 및 예산지원내역, 금년도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의 병상설치 실적과 향후계획, 노인성치매환자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체계 구축과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국비·지방비 등 예산지원 내용 등에 대해 질문했다.




성주 세종대왕자태실

지정번호 : 사적 제444호

지정일자 : 2003. 3. 6

소재지 :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태봉 정상에 소재하는 세종대왕자태실은 세종대왕의 적서 왕자와 세손 단종 등의 태실로서, 그 조성시기는 조선 세종 20년(1438)에서 24년(1442) 사이다. 전체 19기 가운데 14기는 조성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한 다섯 왕자의 태실의 경우 방향의 대석을 제외한 석물이 파괴되어 남아 있지 않으며, 세조 태실의 경우에는 즉위한 이후 특별히 귀부를 마련하여 가봉비를 세워두었다.

태봉에 태를 봉안하기 위한 석물구성은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졌던 독특하고 독자적인 문화라 할 수 있으며, 세종대왕자태실은 왕과 태자에 대한 태실만을 조성하던 고려시대의 태봉안 양식이 변화하여 왕과 왕비 및 그 자녀의 태실을 조성하기 시작한 조선시대 최초의 왕자태실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왕자태실이 완전하게 군집을 이룬 유일한 곳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초기의 태실형태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한다. 



성주 경산리의 성박 숲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403호

지정일자 : 1999. 4. 6

소재지 :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46-1외

성주 경산리의 성박 숲은 성주읍성의 서문 밖에 만들어진 숲이다. 『경산지』 및 『성산지』의 기록에 의하면, “성박 마을에 소년들이 죽는 등 흉사가 이어져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숲을 조성하였다”고 전한다. 마을의 풍치와 보호를 위한 선조의 전통적 자연관을 잇는 비보림으로 현재 수령이 300~5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왕버들 59그루가 자라고 있다. 나무마다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큰 것은 지름이 거의 1m에 이르고 높이는 6~7m 정도이다.

성주 경산리의 성박 숲은 왕버들나무로만 이루어진 숲으로 생물학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도심 주변에 위치하여 휴식, 체육, 행사장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도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태풍 '매미'가 남긴 상처는 지워지고 있습니다.

9월 12일 남해안으로 상륙해 경북지역을 관통하면서 많은 피해를 남기고 간 태풍 '매미'는 지난 '59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사라'를 제치고 역대 최대 태풍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도내 전역에 걸쳐 수많은 인명피해와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은 물론 농경지 유실·매몰, 주택 파손 등 막대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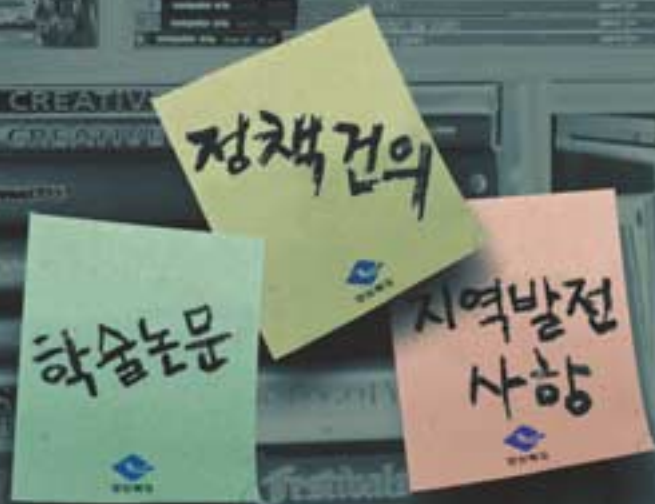
그러나 자발적으로 수해현장을 찾은 도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복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선 시급한 도로, 전기 등 공공시설의 복구를 신속하게 완료하였으며, 전 국민이 보내주신 성원으로 수해의 상처는 점점 아물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실의에 빠진 많은 수재민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재민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경 상 북 도

“여러분의 작은 생각이 세상을 **변** 바꿉니다”



경북 아이디어 대상 공모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정의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경북 아이디어 대상』을 제정하고 도민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널리 공모하고 있습니다

| 공모기간 | 2003. 2. 1 ~ 11. 30

| 응모자격 | 모든 도민

- 개인 및 단체(법인), 기관별(시군, 대학교 등) 공동 응모가능

| 공모내용 | 2개부문(도민, 대학생)

- 도민 : 정책건의 및 지역발전 사항
- 대학생 : 도정발전을 위한 학술논문

※ 아래사항은 제안에서 제외됩니다

- 단순건의, 불만사항, 지역민원, 과도한 예산소요로 현실성이 없는 제안,
- 다른 기관에서 이미 시행중인 것 등은 제외됨

| 응모요령 |

- 작성방법

[도민]

- 분량 :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A4용지 2매 이상
- 방법 : 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자료 제출

[대학생 학술논문]

- 분량 : A4용지 20매 이상(요약분 2~3매 별도)
- 방법 : 항목식으로 구성(각주 처리 등)

| 응모방법 |

- 인터넷, E-mail, Fax, 우편 등 편리한 방법이용
- 인터넷(도정 홈페이지) : www.gyeongbuk.go.kr
- 전자우편(E-mail) : sm0303@gb.go.kr
- FAX : 053) 950-2302
- 우 편 : 각급 행정기관 민원실 또는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된 요금후납 응모서식 활용
 - 주소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우 702-702)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경북 아이디어 대상』담당자 앞
 - 문의처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053-950-2934)

| 시상내역 |

종류	인원	시 상 금 내 역		비 고
		도 민	대 학생	
대 상	2명	2백만원	2백만원	도지사표창
금 상	4명	1백만원	1백만원	도지사표창
은 상	4명	50만원	50만원	도지사표창
동 상	6명	30만원	30만원	도지사표창

※ 응모자(수상 제외자) : 농산물 상품권 전달